

# 대선서 빛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용한 리더십

이재명 후보와 찰떡궁합 공조  
이낙연·정세균 등판 등 숨은 노력  
정권재창출 시너지 효과 만들어  
빼격대는 이준석 대표와 대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의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민주당의 정권재창출 동력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권 교체에 오히려 집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

29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강한 메시지를 잇달아 던지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 등은 토사구팽을 당하면서 배제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한편, 내부 분열을 촉발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송 대표는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 물결 공동연 후보와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러브콜도 보냈다. 혹시라도 있을 윤석열-안철수 연대 가능성을 흔들며 놓고 이재명-김동연 후보와의 연대 카드를 제시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에도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이 적극적인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이나 부동산 공시 가격 조정,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선대위 전면에 나선 것도 송 대표의 숨은 노력이 있었

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의 공조 체제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송 대표도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하는 등 정치적 위상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윤석열 후보와의 정치적 케미(화학적 결합)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정년 바람"을 몰아주기 보다는 윤 후보 측과 갈등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정권교체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근들과의 갈등으로 선대위에서 스스로 이탈한데 이어 최근에는 선대위 개편 등을 놓고 윤 후보와 충돌하는 모습을 잇달아 보이고 있다. 윤 후보가 지난 27일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도 제 3자적 평론가가 대선 관련하다"고 직격탄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즉각 반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선을 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 초선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당 대표 사퇴 문제까지 포함해 내분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분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토론을 잠정 연기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28일 인적쇄신을 포함한 선대위 개편론에 대해 '헛소리'라고 부인하는 등 이 대표의 행보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이낙연 주 회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 및 당내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권교체 여론이 10% 이상 높은 상황에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윤 후보는 물론이고 이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와 이 대표, 김 위원장의 공조 체제 복구가 어찌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OECD 30위권인 삶의 질,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낙연과 함께 신복지 공약 발표  
아동수당 만 15세까지 지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선대위 신설기구인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행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후보는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OECD 10위권임에도 삶의 질은 최하위권인데,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는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아동수당은 만 15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 및 국민연금의 내실화도 추진, 최저 수준의 삶을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복지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내 적어도 OECD 평균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공수처, 기자·윤석열 등 통신자료 조회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여개 언론사에 걸쳐 수습명에 이르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 77명을 비롯해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도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본부장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78명,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의 횡수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윤 후보에 대해

서는 10회, 후보자 배우자(김건희)에 대해서 7회의 불법사찰의 정황이 드러났다. 공수처와 검찰을 합한 것"이라며 "아마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은 총 78명으로 늘어났다.

김 원내대표는 "전체의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의 야당 의원 전원에 대해 한 것으로 보여지고, 78명 중 77명은 (조회 기관에) 공수처가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가 야당수사처인 '야수처'가 될 거라는 예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불법사찰 국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새 캐치프레이즈 '앞으로 제대로' 새 슬로건은 '나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가 29일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새 캐치프레이즈와 후보 슬로건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미래를 향해 가자는 후보의 비전과 국정 운영 철학,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의를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후보의 진심이 담겨있다"며 새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공개했다.

선대위가 공개한 이미지에는 파란 하늘 배경 위에 하얀 글씨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

명'이라고 적혀있다. 새 문구는 2017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캠프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등을 만든 카피라이터 정철 선대위 메시지총괄이 작성했다.

새 캐치프레이즈의 문구 '앞으로'와 '제대로'는 각각 이재명 정부가 걸어갈 두 갈래의 큰 길(路)을 뜻한다. '앞으로'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비전이 함축됐다. '제대로'는 이재명답게 일하겠다는 뜻으로, 어떤 일도 빈틈없이 처리해 효능감을 보여드린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겼다.

새 후보 슬로건 '나를 위해, 이재명'에는 후보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한 가치와 기대를 담았다.

보통 '-하는 대통령'과 같은 표현이 후보 슬로건으로 널리 쓰이는데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빼 후보가 중심이 아님을 부각했다.

선대위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나에게, 내 삶에 힘을 주는 리더"라며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갖고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소시민이 주인이 되는 슬로건"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번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정 시
인문사회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6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고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한국어교육학과	○○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